

조선시대 자편문집에 대한 탐사

- 규장각 소장 자편문집의 발굴과 분석 -

Investigation of Joseon Dynasty Era Chap'yŏn Munjip

- Uncovering and Analyzing Chap'yŏn Munjip in the Kyujanggak Archives -

김수진 (Kim, Su-Jin)*

◁ 목 차 ▷

1. 서론	3.1 판종(版種)
2. 규장각 소장 자편문집의 발굴	3.2 편성(編成)
2.1 자서(自序)에 의한 조사	3.3 편찬 시기
2.2 인기(印記)에 의한 조사	4. 결론
3. 자편문집의 특징 분석	<참고문헌>

< 초 록 >

본고는 문헌학과 문학의 교차 연구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자편(自編) 문집’의 존재에 주목한다. 일찍이 필자는 조선후기 문집간행의 추이를 논하면서 17세기를 기점으로 저자가 생전에 자신의 문집을 자각적으로 정리해놓는 경향이 현저히 늘어난다고 추론하였다. 그 후속 작업으로 본고에서는 규장각 소장 자편문집을 발굴해 분석함으로써 기왕에 필자가 수행한 추론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

본고의 탐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방법론의 측면에서 볼 때 저자의 서문과 인기(印記) 사항은 자편문집 판단의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자서(自序)와 인기 사항에 근거해 조사한 결과 규장각 소장 67종의 문집이 자편문집으로 고구되었다. 셋째, 자편문집의 판종은 원칙적으로 필사본이다. 조선 사대부의 강렬한 ‘저술 입언(立言) 의식’과 ‘간행 유예(猶豫) 의식’ 간의 긴장으로 인해, 동시대 중국과 달리 조선의 자편문집은 필사본 형식으로 유전되었으되 상당 수준의 완성성을 지향하고 있다. 넷째, 자편문집의 편성은 초고본에 근접할수록 저작연대순 편성방식을 취하고, 시기별로 성립된 작은 문집을 합편한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다섯째, 자편문집의 편찬 시기는 작가론의 측면에서는 저자 생애의 전환기와 연계되어 있고, 출판문화의 측면에서는 조선후기 문집편찬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 자편문집이 17-18세기에만 성행했다는 기존 보고와 달리, 저자 생존 시기를 기준으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성행했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要語: 문집(文集), 자편(自編), 자서(自序), 인기(印記), 규장각 소장본, 출판문화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nolvo@snu.ac.kr)

접수일: 2016년 12월 1일 최초심사일: 2016년 12월 16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26일

<ABSTRACT>

Situated at the intersection between literary and philological studies, this paper focuses on Joseon Dynasty Era chap'yŏn munjip, a form of anthology compiled by the author himself. In past research, I suggested the tendency of Chosŏn writers to collect their life's works in a single volume beginning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rough an analysis of chap'yŏn munjip uncovered in the Kyujunggak Archives,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verification for this claim.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a methodological standpoint, an anthology can be determined to be a chap'yŏn munjip by examining the introduction and personal seal of the author. Second, utilizing this method of verification, sixty-seven chap'yŏn munjip were investigated in the Kyujunggak Archives. Third, in principle, chap'yŏn munjip were handwritten transcriptions. On the surface, this practice was related to the firm conventions involved in the publication of a deceased author's work. On the other hand, it reveals how authors actually purposefully prepared their own anthologies while still living, contrary to the custom of publishing an anthology only after the author had deceased. Fourth, the manner in which chap'yŏn munjip are organized can vary. The closer it is to a drafted manuscript, the more it adheres to a chronological order. There are also those that are amalgamations of smaller collected works, organized by period. Fifth, the timing of chap'yŏn munjip publication was related to a "turning point" within the author's life. In terms of the overarching dynamics of publication culture, the timing of chap'yŏn munjip publication was related to the increasing publication of anthologie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era.

In contrast with the view in existing research that chap'yŏn munjip were popular only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by tracing the period in which chap'yŏn munjip authors existed, this paper finds that chap'yŏn munjip were prevalent into the twentieth century.

Key words: Chap'yŏn Munjip, The author's introduction, The author's personal seal, Kyujunggak collection, publication culture

1. 서론

전통시대 문집은 그 자체의 일정한 논리와 규범을 가지고 있다. 문집이라면 시(詩)와 문(文)을 두루 포괄해야 한다든지, 시는 연대순으로 수록하고 문은 문체별로 수록한다든지, 말미에는 저자의 생평을 알려주는 각종 제문(祭文)과 행장(行狀)이 부록 형식으로 더해진다든지 하는 것이 문집의 문헌 규범이다.¹⁾

그런데 이러한 문헌 규범은 작가의 창작 공간에 일정한 틀을 부여하며 작품의 내용에 작용한다. 일례로 문집이라는 문헌을 매개로 작품을 남기고자 한 작가는, 적어도 외설적 글쓰기나 유희적 글쓰기, 혹은 허구적 글쓰기를 지향하기 어렵다.²⁾ 다시 말해서 문집의 체제는 단순히 작품을 수록하고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작가의 창작활동과 작품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문집의 문헌 규범과 문학 작품이 이처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문집’을 중심에 놓고 사유하면 문헌학과 문학의 분명한 경계는 사라진다.

요컨대 ‘문집’이라는 연구과제는, 문헌학에서 문학으로 다시 문학에서 문헌학으로의 월경(越境)을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문집 연구는 전통시대 매체 연구이기 때문에, 한문학 연구자가 문인의 창작 공간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의 장르 규범 못지않게 문집의 문헌 규범을 이해해야 하고, 문학과 문헌학의 양방향 연구를 부단히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학적 필요성 아래 본고는 문헌학과 문학의 교차 연구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자편(自編) 문집’의 존재에 주목한다. 일찍이 필자는 출판문화에서 17세기가 갖는 과도기적 성격을 조명하면서, 조선후기 중대한 변화상으로 자편문집의 성행을 꼽은 바 있다.³⁾ 17세기를 기점으로 저자가 생전에 자신의 글을 정리해놓

1) 문집의 문헌 규범에 대해선 류탁일, “한국 옛 문집의 양태와 출판과정,” 『영남지방출판문화논고』(세종출판사, 2001), 377-393. ; 심경호, “조선시대 문집 편찬의 역사적 특징과 문집 체제,” 『한국문화』 72(2015), 101-130 참조.

2) 조선시대 문집간행에서 외설성, 유희성, 허구성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산삭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김수진, “조선후기 간본문집의 편집경향,” 『규장각』 42(2013), 97-127 참조.

3) 김수진, “조선후기 문집간행의 추이와 그 특징,” 『어문연구』 159(2013), 353-373 참조.

는 경향이 현저히 늘어났다고 본 것인데, 이는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를 비롯해 이인상(李麟祥, 1710-1760),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서유구(徐有榘, 1764-1845) 등 우수 문인의 사례를 기반으로 논한 것이므로, 그 추론을 자료로 검증하는 작업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와 관련해 선행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자편문집 42종을 선별 조사하여, 자편문집이 17-18세기에 성행했다가 19세기에 이르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⁴⁾ 그러므로 본고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약칭) 소장 자편문집을 새롭게 발굴해 분석함으로써 기왕에 필자가 수행한 추론을 검증하는 한편, 선행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는 간본 문집을 위주로 조사하였으므로, 간본과 필사본이 대거 망라된 규장각 소장 문집 자료로 조사의 외연을 확장할 때, 보다 객관적이고 풍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2. 규장각 소장 자편문집의 발굴

2.1 자서(自序)에 의한 조사

규장각에는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운양집』(雲養集) 초간본과 중간본이 소장되어 있다. 초간본은 저자가 직접 쓴 「자서」(自序)를 서두에 실어 1914년에 간행되었고, 중간본은 윤희구(尹喜求, 1867-1926) 등이 쓴 서문을 더해 1917년에 간행되었다. 초간을 앞둔 1913년 여름, 김윤식은 「운양집 자서」(雲養集自序)를 지어 자신이 손수 원고를 교정, 산삭해서 자편고(自編稿)를 만들었다고 술회하였다.⁵⁾ 그리고 남에게 서문을 받지 않고 자서까지 쓴 이유를 이렇게 밝혀놓았다.

4) 정진웅, “조선시대 자편문집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44(2009), 331-348 참조.

5) 金允植, 『雲養集』 「雲養集自序」.

“乃收拾亂稿, 手自校勘, 刪其大半. 仿古人分集之意, 詩則分段爲集, 文則繫之以年, 編爲十有六卷. 時一披閱, 恍然如重履其境, 復觀其人, 亦足慰暮年離索之懷, 其工拙不須問也.”

혹자가 말했다. ‘불후를 도모한다면 어찌 당대 문장가의 글을 청해 권두에 실지 않으십니까?’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서문이라는 것은 그 일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경』 서문과 『서경』 서문은 모두 작자의 뜻을 드러낼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자가 스스로 저술의 동기를 기술했는데 사마천(司馬遷)과 양웅(揚雄)의 『자서』가 이에 해당하지요. 남을 위해 서문을 짓는 것은 황보밀(皇甫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서문을 지어주자 좌사(左思)의 『삼도부』(三都賦)가 당시에 추종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로부터 글 짓는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서문을 구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대체로 찬미 일색이어서 중함을 받기 부족합니다.’⁶⁾

여기서 김윤식은 서문의 본령이 서사(敘事), 즉 저술의 내용이라든가 체제, 성립경위 등을 서술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문의 찬자에 따라 그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하나는 작가가 직접 서문을 짓는 경우로 사마천의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와 양웅의 『법언서』(法言序)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작가 외에 타인이 서문을 짓는 경우로 황보밀의 『삼도부서』(三都賦序)가 이에 해당한다.

남에게 서문을 받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볼 때 황보밀에게 기원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본인의 『자서』는 사마천과 양웅의 사례에 속한다고 계보화한 것이다. 아울러 인용문의 마지막에서 김윤식은 『삼도부서』 이후로 대개의 서문이 찬사 일색이라는 비판을 더하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찬사일변의 서문을 받느니 작가가 직접 쓴 서문이 더 유용하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이와 같은 김윤식의 발언은 자편문집의 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저자의 자서 유무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다만 자서(自序)란 글쓰기는, 본래 문집 외에도 이름이나 호 등에 대해 자유롭게 쓰일 수 있고, 개별 작품이나 단편적 저술에도 붙을 수 있다.⁷⁾ 따라서 자편문집 여부의 판명 근거로 활용될

6) 金允植, 『雲養集』 「雲養集自序」.

“編摩旣成, 將讎梨棗, 或曰: ‘欲圖不朽, 何不謁當世作家之文而弁諸卷首乎?’ 余曰: ‘序者所以敘其事也, 古之『詩』序、『書』序, 皆發明作者之意而已. 不然則作者自述其著作之由, 若司馬遷、楊雄之自序是也. 若爲人作序, 自皇甫謐始, 謐序左思『三都賦』而見重於時, 自是爲文者必求序於人, 大率皆贊美之辭, 不足見重!’”

수 있는 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대상 문집의 측면에서 볼 때 저자의 저술을 폭넓게 망라한 작품집에 대한 서문이어야 한다. 즉, 짧은 시록(詩錄)이나 문록(文錄)처럼 단편적 저술에 붙은 서문은 제외한다. 단, 박지원과 같이 다수의 작품집을 만들고 여기에 여러 편의 자서를 남긴 경우 저자가 평소 원고를 체계적으로 수합했다는 증거이므로 조사 자료에 포함시킨다.⁸⁾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문집의 편찬과정이라는 가 작품의 성립 경위 등을 기술한 것이어야 한다. 김윤식의 언급처럼 자서의 목표는 작가가 스스로의 저술 동기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자서는 대개 「운양집 자서」와 같이 제목에 ‘자서’(自序) 여부를 표기하고 문집의 맨 앞에 수록되는 게 일반적이다.⁹⁾ 그러나 자서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서와 양식이 유사한 자인(自引), 자발(自跋), 자지(自識) 혹은 제목이 없는 서문일지라도 상기 두 요건을 겸비하면 조사 자료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초고본의 경우 문집 편집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본문 제1면이 아니라 편제면(編題面) 혹은 첨지(籤紙)에 서문이 수록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상기 요건을 겸비하면 조사 자료에 포함시킨다.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규장각 소장 문집 중 자서(自序)가 포함된 자료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
- 7) 저자의 이름이나 호에 대한 자서는 正祖의 「萬川明月主人翁自序」, 李元培의 「名字自序」가 있고, 단편적 저술에 붙은 자서는 申光洙의 「耽羅錄自序」 등이 있다.
 - 8) 박지원의 자편과 자서에 대해서는 김영진, “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自編稿 『煉湘閣集』 및 그 계열본에 대하여,” 『동양학』 48(2010), 43-71 참조.
 - 9) 본래 서문은 책의 말미에 수록되었는데 『文選』에 이르러 책의 서두에 수록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참고로 사마천의 「태사공자서」와 양옹의 「법언서」는 책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 10) 정진웅(2009)에서 자편문집으로 소개한 17세기 이전 4종의 자료, 17-18세기 35종의 자료, 19세기 3종의 자료는 본고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1> 규장각 소장 자편문집과 자서(自序)¹¹⁾

연번	세기	서명	저자명	생몰년	판종	권책수	비고
1	17	南礪集選	羅海鳳	1584-1638	목판본	1책	自序: 「南礪集序」, 1634년작 1799년 간행
2	17	樂全堂集	申翊聖	1588-1644	활자본	15권 7책	自序: 「樂全居士自敍」, 1681년경 간행
3	17	東州集	李敏求	1589-1670	목판본	43권13책	自序: 「東州先生前集序」, 1639년작 1679년경 간행
4	17	松溪集	李 滄	1622-1658	활자본	8권 3책	自序: 「松溪集序」, 1656년작 1774년 간행
5	17	葵亭集	申厚載	1636-1699	활자본	7권 3책	自序: 「葵亭詩稿自敍」, 1778년 간행
6	18	雜稿	徐宗泰	1652-1719	필사본	8책	自序: 「雜稿自敍」 『晚靜堂集』으로 1792년 이전 간행
7	18	寤齋集	趙正萬	1656-1739	필사본	4권 4책	自跋: 「寤齋稿自跋」, 1723년작 간본 없음
8	18	藥山漫稿	吳光運	1689-1745	목판본	20권 9책	自引: 「藥山漫稿引」, 1738년작 1924년 간행
9	18	梅軒照影	鄭 煜	1709-1770	목판본	4권 2책	自序: 「照影自敍」, 1905년경 간행
10	18	雙柏堂遺稿	林光澤	1714-1799	필사본	4권 2책	自序: 「自敍」, 간본 없음
11	18	修井集	鄭景淳	1721-1795	필사본	5책	自序: 제목 없음, 1760년 이후 작성 간본 없음
12	18	太疎集	金 容	1726-미상	필사본	8권 4책	自序: 제목 없음, 2편 詩稿, 文稿 각각 한편씩 붙음
13	18	百一集	沈翼雲	1734-1783	필사본	2권	自序: 「百一詩集序」, 「百一文集序」, 1767년 이후 서문 작성
14	18	素心遺稿	申卜翼	18세기 추정	필사본	2권 1책	自序: 「素言自敍」 저자 나이 40세경 작성
15	19	薑山初集	李書九	1754-1825	필사본	4권 1책	自序: 제목 없음. 1778년작 간본 없음
16	19	新谷隨纂	宋琦鼎	1762-1834	활자본	1책	自序: 「新谷序」, 1830년작 1859년 간행
17	19	桐漁遺集	李相瓚	1763-1841	필사본	8권 10책	自序: 「甲藥自敍」, 간본 없음

11) 본고에 제시된 표의 '세기' 분류는 저자의 몰년을 기준으로 하고, '비고'에 나오는 간행 연도는 초간을 기준으로 한다. 판종 및 권책수 등 서지사항은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규장각, 1994) 및 『귀중본도서 조사사업 결과보고서』(규장각, 2014·2015·2016)를 참고 하였고, 40종의 문집 가운데 『樂全堂集』과 같이 한국문집총간으로 영인된 14종의 문집에 대해서는 총간 해제를 참고하였다.

연번	세기	서명	저자명	생몰년	판종	권책수	비고
18	19	無睡集	尹 植	1765-1824	필사본	6권 6책	自序: 「無睡集自序」, 1821년작 간본 없음
19	19	自娛	韓益相	1767-1846	필사본	6책	自序: 「自娛序」, 1830년작 간본 없음
20	19	臨淵堂集	李亮淵	1771-1853	필사본	8권 2책	自序: 「臨淵堂集序」, 1847년작 간본 없음
21	19	冠巖山房新編稷石外史	洪敬謨	1774-1851	필사본	전, 후, 속편 도합 42책	自序: 「外史自序」, 1837년작 간본 없음
22	19	初庵集	金憲基	1774-1842	활자본	14권 7책	自序: 「自序」, 1828년작 1881년 간행
23	19	愼窩集	鄭在燧	1781-1858	활자본	9권 4책	自序: 「愼窩集自序」, 1903년경 간행
24	19	恩誦堂續集	李尙迪	1804-1865	목판본	1책	自識: 「自識」, 1847년작 원집 1848년, 속집 1863년경 간행
25	19	嘉梧藁略	李裕元	1814-1888	필사본	13책	自引: 「自引」 간본 없음
26	19	笑笑漫錄	李在燾	1819-미상	필사본	1책	自序: 「題笑笑漫錄」, 1876년작 간본 없음
27	19	晚香齋詩鈔	南相吉	1820-1869	후사본	1책	自序: 「自序」, 1867년후 간행
28	19	古歡堂收帥	姜 瑋	1820-1884	활자본	詩稿 3책 文稿 3책	自序: 「自序」, 1853년작 시고 1885년, 문고 1889년 간행
29	19	冬郎集	韓致元	1821-1881	활자본	1책	自序: 「冬郎集自敘」, 1872년작 1899년 간행
30	19	新齋集	李度中	1822년후 歿	필사본	32권 13책	自序: 「詩集小序」, 1822년작 「文集自序」, 저자 나이 69세작
31	19	三愚集	金汝振	19세기 추정	필사본	5권 5책	自序: 「三愚集序(一)」 간본 없음
32	19	知非稿鈔	李九夏	1861년후 歿	필사본	1책	自序: 「知非稿自鈔序」, 1861년작 (40세 이후작), 간본 없음
33	19	存齋遺稿	申東永	1800년후 歿	필사본	3권 3책	自序: 「存齋筭疑自序」, 1800년작 간본 없음
34	20	雲養集	金允植	1835-1922	활자본	원집 5책 속집 2책	自序: 「雲養集自序」, 1913년작 1914년 원집 간행
35	20	精刊韶漫堂集補	金澤榮	1850-1927	활자본	21권 7책	自序: 「序」, 1920년작 1911년 간행, 규장각본은 삼간본
36	20	管叟妄論	金炳性	1852-미상	필사본	2책	自序: 「蜂甘集序」 간본 없음
37	20	盤菴文稿	趙禮錫	1861-미상	석인본	6권 4책	自序: 제목 없음, 1928년작 1930년 간행

연번	세기	서명	저자명	생몰년	판종	권책수	비고
38	20	石泉私稿	鄭世永	1872-1948	석인본	7권 4책	自序: 『石泉私稿』, 1929년작 1970년경 간행
39	20	畚農詩稿	徐丙奎	1928년후 歿	활자본	2권 2책	自序: 『自序』, 1929년작 1929년경 간행
40	20	雲窩遺稿	申相秀	20세기 추정	석인본	1책	自序: 『自序』 1969년 간행

2.2 인기(印記)에 의한 조사

조선시대 문집은 저자 사후 간행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19-20세기에 오면 저자 생전에 간행된 예를 종종 찾을 수 있다.¹²⁾ 기존 연구에서 소개한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의 『금릉집』(金陵集) 외에 앞서 살펴본 김윤식의 『운양집』 그리고 <표 1>의 24번 및 35번에 제시된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의 『은송당집』(恩誦堂集), 김택영(金澤榮, 1850-1927)의 『정간소호당집보』(精刊韶濩堂集補)가 모두 저자 생전에 간행되었다.¹³⁾

이와 더불어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과 『육교고략』(六橋稿畧)도 저자 생전에 간행되었다. 먼저 『정헌영해처감록』은 조정철(趙眞哲, 1751-1831)이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을 주로 모은 것으로, 저자가 서문을 지은 1778년부터 1805년 해배기 이후의 시문까지 망라되어 있다.¹⁴⁾ 권상신(權常愼, 1759-1824)이 1824년에 쓴 서문이 수록된 점으로 보아 그즈음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규장각 소장본은 조정철의 인장이 찍혀 있어 주목을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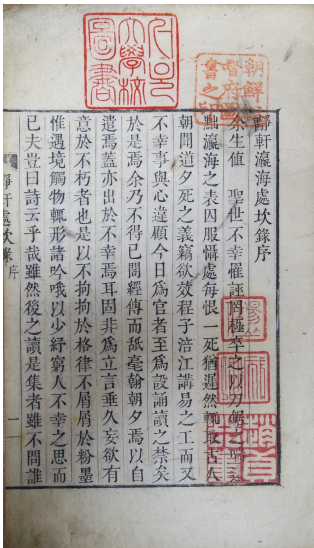
12) 조선시대 문집출판의 저자 사후 간행 관례에 대해서는 김윤제, “조선시대 문집 간행과 성리학,” 『한국사시민강좌』 37(일조각, 2005), 80-82. ; 김수진(2013), 366-369 참조.

13) 규장각 소장 『精刊韶濩堂集補』는 김택영 문집 중 삼간본 계열에 속한다. 김택영은 1911년에 『滄江稿』를 초간하였을 뿐더러 평생에 걸쳐 여러 차례 문집을 간행하였다. 현존하는 김택영 문집의 종류와 그 간행시기에 대해서는 최영옥, “김택영 문집의 간행경위와 이본 고,”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12-21 참조.

14) 『정헌영해처감록』에 수록된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박동욱,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 - 『정헌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8-3(2010), 381-409 참조.

<도판 1>은 규장각 소장 『정헌영해처감록』의 서문 제1면으로, 우측 하단에 아래에서부터 ‘조정철장’(趙貞詰章)의 백문방인(白文方印) 1과(顆), ‘성경’(成卿), ‘양산인’(楊山人)의 주문방인(朱文方印) 두 과가 차례로 찍혀 있다.¹⁵⁾ 조정철의 자(字)가 성경이고 본관이 양주이므로, 규장각 소장본은 조정철이 생전에 간행을 일단락하고 직접 소장했던 수택본이다.

한편 『육교고략』은 이조목(李祖默, 1792-1840)의 문집으로 중국인 섭지선(葉志詵)이 1817년에 쓴 서문과 이조목이 1823년에 쓴 자서가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본은 <도판 2>에서 볼 수 있듯 본문 제1면에 ‘이조목인’(李祖默印)과 ‘육교’(六橋)라고 새겨진 인장이 찍혀 있다. 따라서 『육교고략』은 저자 생전에 간행되었음이 분명하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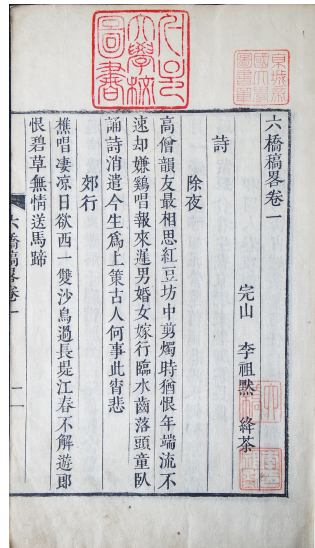
<도판 1> 『정헌영해처감록』



祖默 / 李印



詰章 / 趙貞



<도판 2> 『육교고략』

15) 『정헌영해처감록』을 비롯해서 규장각 소장 문집의 인기 사항은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규장각, 1994)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은 『정현영해처감록』과 『육교고략』의 예는, 저자의 장서인이 찍혀 있을 경우 저자의 수택본일 뿐만 아니라, 저자의 직접적 관여 아래 간행된 문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증해준다. 간본뿐만 아니라 필사본 문집에서도 저자의 장서인 유무는 자편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잣대가 된다.

윤심위(尹心緯, 1716-1781)의 『언식소사기』(言息所私記)를 비롯해서 신택권(申宅權, 1722-1801)의 『저암만고』(樗庵漫藁), 윤흥규(尹馨圭, 1763-1823 이후)의 『희재잡록』(戲齋雜錄), 유취진(柳最鎭, 1791-1869)의 『병금시초』(病吟詩艸), 조한복(趙漢復, 1870-1902 이후)의 『아몽휘어』(我夢彙語)는 서두에 자서를 수록하고 있을뿐더러 저자의 인장이 여러 종 압인되어 있다.

나아가 규장각 소장 『학고만어』는 김이만(金履萬, 1683-1758)의 필사본 문집인데, ‘김이만인’(金履萬印)의 성명인(姓名印)과 ‘중수’(仲綏) 등의 자호인(字號印)이 찍혀 있다. 그는 1752년에 쓴 『가훈』(家訓)에서 후손에게 자편고(自編稿)의 존재를 알리고 재산정을 당부한 적이 있다.¹⁷⁾ 따라서 규장각 소장 『학고만어』는 김이만이 생전에 만든 자편고이고, 간본 『학고집』(鶴臯集)은 김이만 사후 편집이 더해져 출판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서뿐만 아니라 저자의 인기 사항은 자편문집 판명의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저자의 인장이 찍힌 문집은 간본일 경우 생전 간행을 실증할 수 있고, 필사본일 경우 간행까지 일단락하지 못했지만 저자 생전에 자편해 편찬된 문집임을 미루어 헤아릴 수 있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 문집 중 저자의 인장이 압인된 자료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 규장각 소장본 『육교고략』에 대해서는 김영진, “조선후기 중국사행과 서책 문화,” 『연행의 사회사』(경기문화재단, 2005), 254 참조.

17) 金履萬, 『鶴臯集』 卷10, 『家訓』.

“後世子孫如有篤於詞翰, 而力能梓布者, 則可付劊劊, 而『青田三稿』之外, 續稿卷秩亦不少, 雖已抄者, 更加刪定, 務精不務多, 而中稿以上爲初稿, 晚稿爲中稿, 續稿以下爲晚稿, 可也.”

<표 2> 규장각 소장 자편문집과 인기(印記)

연번	세기	서명	저자명	생몰년	판종	권책수	비고
1	18	網菴草稿	申 琬	1646-1707	필사본	10책	印記: 〈平山申琬公獻之印〉外 『網菴集』으로 1766년 간행
2	18	鶴臯漫言	金履萬	1683-1758	필사본	10책	印記: 〈金履萬印〉, 〈仲綏〉外 『鶴臯集』으로 19세기 간행
3	18	覆醬具	李喆輔	1691-1770	필사본	2책	印記: 〈保叔〉 간본 없음, 『止庵遺稿』(필사본)
4	18	雷淵詩稿	南有容	1698-1773	필사본	5책	印記: 〈有容德哉〉外 『雷淵集』으로 1783년 간행
5	18	斗南集	李匡師	1705-1777	필사본	4책	印記: 〈匡師〉, 〈道甫〉外 간본 없음, 『圓嶠集』(필사본)
6	18	野淵漫錄	尹昌埴	1713-1787 년후 歿	필사본	3책(落帙)	印記: 〈尹昌埴印〉外 간본 없음
7	18	言息所私記	尹心緯	1716-1781	필사본	5책	印記: 〈尹心緯印〉外 간본 없음, 自序 수록(1765년작)
8	19	楞庵漫藁	申宅權	1722-1801	필사본	6책	印記: 〈申宅權聖居印〉外 간본 없음, 自序 수록(1782년작)
9	19	自著	俞漢雋	1732-1811	필사본	29권 15책	印記: 〈子之自著表表俞偉 汝成〉外 간본 없음
10	19	十友軒集抄	徐直修	1735-1811	필사본	1책	印記: 〈納山中十友軒定泉翁〉外 간본 없음, 『巖川堂稿』(필사본)
11	19	靜軒瀛海 處坎錄	趙貞喆	1751-1832	활자본	4권 2책	印記: 〈趙貞喆章〉, 〈成卿〉外 1824년경 간행, 自序 수록(1778년작)
12	19	戲齋雜錄	尹馨圭	1763-1823 년후 歿	필사본	6책	印記: 〈尹馨圭印〉, 〈戲齋〉 외 간본 없음, 自序 수록(1823년작)
13	19	晚村稿	朴宗喜	1775-1849	필사본	1책	印記: 〈潘南朴氏〉, 〈宗喜汝受〉外 간본 없음
14	19	大山詩抄	吳昌烈	1783-1865	필사본	8권 4책	印記: 〈大山〉, 〈如章〉外 간본 없음
15	19	義軒漫稿	李道衍	1789-1850 년후 歿	필사본	4책	印記: 〈延安世家〉, 〈李道衍印〉外 간본 없음
16	19	病唵詩艸	柳最鎭	1791-1869	필사본	4책	印記: 〈柳最鎭印〉外 간본 없음, 自序 수록(1843년작 외)
17	19	六橋稿畧	李祖默	1792-1840	활자본	2권 1책	印記: 〈李祖默印〉, 〈六橋〉外 생전 간행, 自序 수록(1823년작)
18	19	蓉山私藁	鄭健朝	1823-1882	필사본	2책	印記: 〈鄭健朝致中章〉 간본 없음
19	19	雲山類稿	咸瑑 外	1826-미상	필사본	1책	印記: 〈咸瑑之印〉外 간본 없음

연번	세기	서명	저자명	생몰년	판종	권책수	비고
20	19	愍筍收錄	成載崇	1829-미상	필사본	4책	印記: 〈成載崇氏〉外 간본 없음
21	19	蘿雲子 初學集	金永稷	1831-미상	필사본	1책	印記: 〈金永稷印〉外 간본 없음
22	19	鶴村私稿	申 梓	19세기	필사본	1책	印記: 〈東陽人申梓汝喬之印〉 간본 없음
23	19	心壺靑粧錄	徐相羽	1834-미상	필사본	4권 1책	印記: 〈徐相羽〉外 간본 없음
24	19	塞白	孟晚燮	1839-미상	필사본	16책	印記: 〈華松〉 간본 없음
25	20	荷江文稿	朴齊環	1831-1902 년후 歿	필사본	6권 6책	印記: 〈朴齊環章〉 간본 없음
26	20	誠新齋自集	李德夏	1845-1913	필사본	10책	印記: 〈李德夏印〉, 〈誠新齋〉外 간본 없음
27	20	我夢彙語	趙漢復	1870-1902 년후 歿	필사본	26책 (落帙)	印記: 〈漢復〉, 〈我夢〉外 간본 없음. 『彝叙詩話』(필사본)

3. 자편문집의 특징 분석

3.1 판종(版種)

<표 1>과 <표 2>에 제시된 문집은 도합 67종이다. 그 가운데 필사본이 46종에 달하므로 전체 조사 자료의 절반을 상회한다. 목판본이나 활자본으로 간행된 경우에도 저자 생전에 출판된 문집이 5종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 저자 생존시 자편문집의 판종은 대부분 필사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선시대 강력한 규제력을 갖던 저자 사후 간행 관례로 인해 자편문집의 판종은 대부분 필사본이고, 저자 사후 간행 실현 여부에 따라 추후 간본과 필사본으로 나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자편문집의 판종이 원칙적으로 필사본이라는 점은, 다른 각도로 보면 저자의 서문 내지는 장서인이 수록된 문집이 필사본일 때 고본(稿本)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뜻이다. 고본은 원고의 편집 단계에 따라 다시 초고본(草稿本)과 정고본(定稿本)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규장각에는 이철보(李喆輔, 1691-1770)의 필사본 문집이 2종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부장구』(覆醬具)는 초고본이고 『지암유고』(止菴遺稿)는 정고본이다.

『부장구』는 앞서 <표 2>의 3번에 제시된 것처럼 저자의 장서인이 찍힌 자편 문집이다. 실제 자료를 보면 본문에 산삭을 지시하는 꺾쇠 표시와 각종 수정사항이 기입되어 있는데, 산삭이 표시된 작품은 『지암유고』에 누락되었고 수정사항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지암유고』는 『부장구』를 대본으로 수록 내용을 교정하고, 여기에 「정사연행일기」(丁巳燕行日記) 및 「동유록」(東遊錄) 등 유문을 대거 수습해서 만들어진 정고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표 2>의 26번에 제시된 이덕하(李德夏, 1845-1913)의 『성신재자집』(誠新齋自集)은 ‘완산(完山)’, ‘이덕하인’(李德夏印), ‘성신재’(誠新齋), ‘해사’(海史), ‘화강산인’(華江散人) 등 저자와 관련된 장서인이 여러 종 찍혀 있다. 표제(表題)가 ‘해사자집’(海史自集)이고 권수제(卷首題)가 ‘성신재자집’(誠新齋自集: 제 1, 2, 5책) 및 ‘해사자집’(제3, 4, 6, 7, 8, 9, 10책)으로 서명이 단일하지 않으며, 본문에 흑목과 주목으로 여러 교정 사항이 표기되어 있다.¹⁸⁾

무엇보다도 『성신재자집』에는 매 책마다 본문의 수록작 제목 상단에 주목(朱墨)으로 권점 및 꺾쇠 표시가 쳐졌는데 현재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에 소장된 『성신재집』(誠新齋集)과 비교해보면 권점만 쳐진 작품은 『성신재집』에 수록된 반면 꺾쇠가 쳐진 작품은 누락되었다. 『성신재집』(誠新齋集)은 제1책에 윤희구(尹喜求, 1867-1926)의 서문이 실려 있고 제12책에 저자의 묘도문자가 실린 점으로 보아 저자 사후 정리된 것이다. 그러므로 규장각 소장본은 저자 생전에 정리된

18) 후술하거니와 『성신재자집』 외에도 자편문집은 표제와 권수제가 다르거나, 매 책별 권수제가 상이한 경우가 왕왕 존재한다. 따라서 자료의 실상에 맞게 서명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기왕에 조명되지 않던 자편 문집을 발굴해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므로, 이용자의 자료 확인 편의를 위해 기존 목록집의 서명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을 부기해둔다. 이와 관련해 고서 정리에서 서명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천혜봉, “古書의 統一標目,” 『한국서지학연구』 (삼성출판사, 1991), 137-158 참조.

자편문집이자 초고본이고, 연칭도서관 소장본은 저자 사후에 재편집된 정고본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도판 3> 『성신재자집』



<도판 4> 『뇌연시교』

한편 저자 사후 문집이 출판되는 경우, 저자 생전에 정리한 자편문집은 간본의 편집 저본으로 이용된다. 대표적 예로 <표 2>의 1번에 제시된 신완(申琬, 1646-1707)의 『경암초고』를 짚어보기로 한다. 『경암초고』는 매 책마다 말미에 “경암부군

19) 자서와 인기 사항이 남아 있지 않아 본고의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규장각 소장 『恩坡散稿』 <古3428-820> 본도 저자의 자편 유고이다. 체제와 방증 자료로 보건대 沈樂洙는 유배기인 1788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술을 정리하기 시작해 생전에 자편 문집을 만들었고, 저자 사후 아들 沈魯崇이 여기에 교정 및 부록을 더해 정고본을 만들었다. 규장각 소장 『은파산고』 <古3428-820> 본이 초고본에 해당하고, 현재 버클리대학교 아사미문고에 소장된 『은파산고』가 정고본에 해당한다. 이 점을 포함해서 심낙수 문집의 종류와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김수진, “『은파산고』(恩坡散稿)의 성립과 심노승(沈魯崇),” 『한국문화』 72(2015), 138-141 참조.

전고(網菴府君全藁) 화암부군 편집(和菴府君編輯), 손자 경 가정(孫暲家藏)”이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경암’은 저자 신완을 가리키고, ‘화암’은 저자 신완의 장자인 신성하(申聖夏, 1665-1736)를 가리키며, ‘손자 경’은 신성하의 차자인 신경(申暲, 1696-1766)을 가리킨다.

신완의 문집은 저자 사후 신성하의 편집과 손자 신경의 재편집이 더해져 1766년에 『경암집』으로 인출되었다. 『경암초고』에는 작품의 상단과 말미에 ‘등’(登) 혹은 ‘비’(非)라는 글자가 기입되어 있는데, 간본 『경암집』과 대조해보면 ‘등’이라고 적힌 작품은 간본에 수록되었고 ‘비’라고 적힌 작품은 누락되었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 『경암초고』는 신완의 초고본으로, 신성하가 간본 편찬을 위해 수록작 선정 작업을 수행한 편집 저본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표 1>의 6번에 실린 서종태(徐宗泰, 1652-1719)의 자편문집 『잡고』(雜稿)도 간본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종태의 문집으로는 그간 간본 『만정당집』(晩靜堂集)이 알려져 왔는데 『만정당집』에는 「잡고자서」(雜稿自敘)라는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 서종태는 “폐추천금”(弊 추천금)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보잘 것 없는 글일지라도 각자 자신에게는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설교하였다.²⁰⁾

그런데 규장각에는 ‘잡고’라는 표제를 가진 서종태의 필사본 문집이 소장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잡고』와 『만정당집』의 수록작을 견주어보면 『잡고』에 나타난 여러 방식의 내용 수정이 대부분 『만정당집』에 반영되었다. 동시대 이덕수(李德壽, 1673-1744)도 신도비명에서 서종태의 유고(遺稿)가 가문에 전승되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규장각 소장 『잡고』는 서종태의 자편 유고로서 저자 사후 간본 편찬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¹⁾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자편문집의 판종은 일반적으로 필사본이되, 동일한 인물

20) 徐宗泰, 『晩靜堂集』 第11, 「雜稿自敘」.

“客又有解之曰: ‘今夫富商家, 火齊尺璧殷如也, 則必緘滕以貯之. 寡人藏弊簪珍寸金, 猶恐其或遺物, 則誠有間, 而亦各言其寶也.’ 余深擬其言有理, 遂笑而錄之.”

21) 李德壽, 『西堂私載』 卷5, 「禮曹判書贈左贊成徐公墓碑銘」.

“爲文, 詞理精到, 最爲息菴 金相公所歎賞, 有『晩山遺稿』若干卷, 藏于家.”

에 대해서 두 종 이상의 이본(異本)이 존재하는 경우 초고본과 정고본으로 계열화된거나 간본과 간본의 편집 저본으로 계열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저자의 자편 작업이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문집의 완성성을 높이기 위해 저자 생전과 사후 편집이 거듭 이루어지고 다시 간본의 성립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도판 4>에 제시된 남유용(南有容, 1698-1773)의 『뇌연시고』(雷淵詩稿)는 자편문집일 뿐만 아니라 저자가 생전에 후배 문인 이민보(李敏輔, 1720-1799)에게 보내어 작품의 재산정을 부탁한 문헌이기도 하다.²²⁾ 또한 <표 1>의 7번에 제시된 조정만(趙正萬, 1656-1739)의 『오재집』(寤齋集)은 저자의 발문뿐만 아니라, 저자가 생전에 이이명(李頤命, 1658-1722), 이희조(李喜朝, 1655-1724), 이의현(李宜顯, 1669-1745)에게 직접 의뢰해 받은 제발(題跋)을 수록하고 있다.²³⁾ 흔히 자편문집에 대해 ‘부장’(覆醬), 즉 장독 덮개라든가 폐추(弊帚), 즉 몽당 빗자루라는 식으로 수사적 차원에서 겸양의 언사를 남기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후 간행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생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자편문집이 대부분 필사본이라는 점은 표면적으로는 저자 사후 간행 관례의 강고한 규제력을 보여주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규제를 형식상 준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간행을 미연에 준비하고 면밀히 기도하던 이면(裏面)의 상황을 여하히 드러내준다. 조선 사대부의 강렬한 ‘저술 입언(立言) 의식’과 ‘간행 유예(猶豫) 의식’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동시대 중국과 달리 조선의 자편문집은 필사본 형식으로 유전되었으되, 상당 수준의 완성성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22) 이민보의 남유용 시고 산정 작업에 대해서는 李敏輔, 『雷淵詩稿使我略揀既卒業呈一篇謹要和詩』, 『豐墅集』卷5 참조. 이 시의 2구에는 “雷淵五卷詩”라는 말이 나오는데 규장각 소장 『뇌연시고』는 실제로 5책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문에 주목과 청목으로 비점 및 산삭 표시가 되어 있고 書眉에 자구 교정이 이루어졌다.

23) 조정만은 1708년과 1712년에 각각 이이명과 이희조에게 제발을 받았고, 1723년에 『寤齋稿自跋』을 썼으며, 다시 1726년에 이의현에게 발문을 받았다.

3.2 편성(編成)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간본 문집은 문체별 분류를 따른다. 저자가 다양한 문체에 능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운문과 산문을 구분해 수록하고 그 안에서 다시 운문은 창작연대순으로 실는다거나 부(賦), 절구(絶句), 율시(律詩), 고체(古體) 등으로 나누어 실고 산문은 서발(序跋), 논변(論辯), 애제(哀祭), 잡저(雜著) 등으로 나누어 실는다.²⁴⁾ 이에 따라 저자 생존시 성립된 서종태의 『잡고』와 김이만의 『학고만어』는 편년순 편성방식을 취한 데 반해, 저자 사후 편찬된 간본 『만정당집』과 『학고집』은 문체별 편성방식을 취하였다.

『백일집』(百一集)과 『만촌고』(晩村稿)와 같이 자편문집이 문체별 편성을 취한 예도 있지만, 초고본에 가까울수록 편년순 편성방식을 취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규장각에는 정경순(鄭景淳, 1721-1795)의 문집이 2종 소장되어 있는데 <표 1>의 11번에 제시된 『수정집』(修井集)은 초고본에 해당한다. 초고본은 운문과 산문을 합해 저작연대별로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반해 정고본 『수정유고』(修井遺稿)는 운문과 산문을 나눈 후 그 안에서 저작연대별로 실고 있다. 특이하게도 초고본 『수정집』은 표제가 ‘신록’(辛錄)으로 되어 있는데, 정경순은 서명을 이렇게 지은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유년(1741)에서 경오년(1750)까지는 이신록(二辛錄)이고, 신미년(1751)에서 금년 경진년(1760)까지는 삼신록(三辛錄)이다. 신유년(1741) 이전 약간의 글은 이신록으로 통칭한다. 내가 신축년(1721)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유년은 이십대의 시작이요, 신미년은 삼십대의 시작인바 뒤이어 짓는 것도 이와 같이 할 뿐이다. 오월 하순에 부림 병부(富林病夫)가 쓰다.²⁵⁾

인용한 자서(自序)에서 정경순은 자신이 태어난 해인 신축년을 기점으로 10년

24) 문집의 문체별 수록방식이 저자의 ‘중체구비’(衆體具備)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점은 심경호(2015), 120 참조.

25) 鄭景淳, 『修井集』 第1冊, 「自序」.

“自辛酉至庚午曰『二辛錄』, 自辛未至今年庚辰曰『三辛錄』, 而辛酉以前若干篇, 統目以『二辛錄』, 蓋余生辛丑, 故以辛酉爲二十作之始, 辛未爲三十作之始, 繼而爲者, 亦放此而已. 五月下澣, 富林病夫識.”

단위로 생애를 나누면 20대의 시작은 신유년이고 30대의 시작은 신미년이므로 각각 이신록(二辛錄)과 삼신록(三辛錄)으로 명명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지은 글도 비슷한 방식으로 편성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실제로 『수정집』은 이신록과 삼신록 외에 사신록(四辛錄), 오신록(五辛錄), 육신록(六辛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초고본 『수정집』은 저자의 생애주기를 나타내는 다섯 개의 작은 문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정고본 『수정유고』는 운문과 산문의 분류를 시도하여 제1책부터 제3책까지는 운문을 수록하고 제4책부터 제5책까지는 산문을 수록하고 있다. 다만 초고본의 특징을 이어받아, 개별 책마다 내제(內題) 바로 아래에 권차(卷次)가 부여되는 대신에 이신록 등의 제명(題名)이 기입되어 있다. 다섯 개의 작은 문집으로 이루어진 초고본의 체제를 가급적 해체하지 않는 선에서 운문과 산문만을 구분해 편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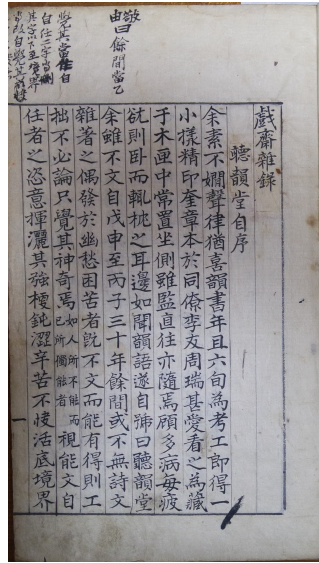
한편 <표 2>의 12번에 제시된 윤흥규의 『희재잡록』은 도합 6책으로 되어 있는데, 매 책마다 표지에 저술 연도가 표시되어 있다. 본래 조선시대 문집의 책의(冊衣), 즉 표지에는 좌측 상단에 서명이 세로로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책차(冊次)가 적혀 있다. 반면 『희재잡록』은 <도판 5>에서 볼 수 있듯 책차 부분에 저술 연도가 적혀 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제1책은 1788년에서 1810년, 제2책은 1810년에서 1816년, 제3책은 1816년에서 1824년, 제4책은 1824년에서 1828년, 제5책은 1828년에서 1832년, 제6책은 1832년에서 몰년까지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제3책에 실린 「청운당자서」(聽韻堂自序)는 이 문집의 성립경위를 소상히 알려준다. 이 글에서 윤흥규는 일찍이 1788년부터 1816년까지 30년간의 저술을 묶어 ‘희재잡록’(戲齋雜錄)이라 명명한 바 있다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1823년 겨울 그간의 저술을 다시 정리해 1816년부터 1823년까지의 작품을 ‘청운당잡록’(聽韻堂雜錄)이라는 제명(題名) 아래 묶는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희재잡록’에서 ‘청운당잡록’으로 이처럼 문집의 이름이 바뀐 까닭은, 육순을 기념해 ‘청운’(聽韻)이란 호(號)를 새롭게 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⁶⁾

26) 尹馨圭, 『戲齋雜錄』第3冊, 「聽韻堂自序」.



<도판 5> 『희재잡록』 표지



<도판 6> 『희재잡록』 자서

실제로 『청운당자서』가 실린 제3책을 보면, <도판 6>의 본문 제1면에서 내제 부분이 도삭되고 ‘희재잡록’으로 수정되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즉, 자호(自號)의 변화에 맞추어 문집의 제명이 바뀌었는데 추후 재판집을 하면서 일괄 ‘희재잡록’으로 통일해 수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희재잡록』의 예는 자편문집이 책별로 내제가 다르거나 표제와 권수제가 불일치하는 등 서명의 통일성이 부족한 이유를 납득케 한다. 자편 작업이 저자의 전 생애를 걸쳐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편집 당시 저자가 사용하던 호라든가 거주하던 지명, 여행이나 중요 모임 등에서 책별 제명을 취한 결과인 것이다.

<표 1>의 3번에 제시된 이민구(李敏求, 1589-1670)의 『동주집』(東州集)은

“余雖不文，自戊申至丙子，三十年餘間，或不無詩文雜著之偶發於幽愁困苦者，(…)一一收聚錄，成一冊子，題之曰『戲齋雜錄』，戲齋之義，已見於原稿，不用更發。今又自丙子更起至癸未，八年間所述作，多不滿半卷而隨得爲入錄，計將不知爲幾篇許也。更題曰『聽韻堂雜錄』，蓋戲齋古我也，聽韻今我也，其名雖異，其人則一我也。”

저자 사후 간행되었지만 자편 원고의 원형을 가급적 살리는 방향으로 편집이 이루어졌다. 1639년에 지은 자서에서 이민구는 ‘선위(宣慰), 종군(從軍), 영남(嶺南), 가림(嘉林), 묘술(卯酉), 동유(東游), 관동(關東), 관서(關西) 등의 시록’이 있다고 술회하였다.²⁷⁾ 이에 맞추어 간본 『동주집』은 저자가 1621년 선위사(宣慰使)로 있을 때 지은 시를 묶은 ‘선위록’(宣慰錄)에서부터 시작해서, 70세 이후 지은 시를 묶은 ‘착륜록’(斲輪錄)에 이르기까지, 연대순에 따른 도합 12개의 시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문집의 체제와 달리 운문을 시체별로 분류하지 않고, 저자가 생전에 정리한 시록을 합편해 만든 것이다.

기실 조선 후기에 오면 시기별로 성립된 각각의 작은 문집을 합쳐놓은 형식의 문집이 다수 등장한다. 박지원, 서유구,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이만수(李晩秀, 1752-1820), 채제공(蔡濟恭, 1720-1799), 김려(金鑪, 1766-1821)의 문집이 그러한 예이다.²⁸⁾ 시기별 문집의 합편 현상은 자편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조선후기의 상황을 반영한다. 『동주집』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저자가 생전에 자편한 문집일 경우 후인이 자의적으로 재편집하는 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료의 제약으로 자서와 인기 사항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집의 편성이 시문 공히 저작연대순 수록방식을 취한다거나 시기별로 성립된 작은 문집을 합편해 이루어졌다면, 저자 생전에 자편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자편문집의 저작연대순 편성방식이 문체별 편성에 비해 짜임새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의 장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체별 편성은 특정 양식의 글을 분류해 제시하므로 작품의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같은 문체의 글이면 초년작이든 말년작이든 함께 묶어내기 때문에 작가의 시기별 변화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 결과 어떤 작품이 어느 시기에

27) 李敏求, 『東州集』 『東州先生前集序』.

“自壬戌以後爲前稿, 其目有宣慰、從軍、嶺南、嘉林、卯酉、東游、關東、關西等錄.”

28) 서유구의 『풍석전집』 등 조선후기 다수의 문집이 저작시기별로 성립된 작은 문집을 합편해 만들어졌다는 점, 이것이 저자 생전에 이루어진 자편의 체제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은 김대중,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27-28 참조.

지어졌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는 작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질적 변화를 거치면서 나름의 문학세계를 완성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학 연구자가 조선시대 문인의 실체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 작품의 편년을 비정하는 작업, 즉 시계열화 하는 작업이 반드시 요청된다. 그런 점에서 간본 문집 이전에 성립된 작가의 자편문집을 발굴하는 일은, 문헌학적 의미만이 아니라 개별 작가의 작품론과 작가론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3.3 편찬 시기

자편문집의 편찬 시기는 크게 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생애사적 측면에서 저자가 주로 어느 시기에 자신의 저술을 정리했느냐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출판문화의 측면에서 조선시대 자편문집이 성행한 시기가 언제이고 이것이 문집간행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본고는 규장각 소장 자편문집에 수록된 자서(自序)의 저작연도를 조사해 <표 1>, <표 2>의 비교란에 기술하였다. 『남간집선』(南澗集選)처럼 “갑술년(1634) 삼월 그믐날 남간주인 나해봉 응서가 자서하다”(甲戌季春晦日, 南澗主人羅海鳳應瑞自序)라고 하여 자서의 저작연도를 분명히 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심유고』(素心遺稿)처럼 수록 내용을 통해 자서 집필 시 저자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구체적 정보를 조사해 정리하였다.

앞서 자편문집의 판종과 편성에서 확인하였듯, 실제 저술의 정리 작업은 일회로 끝나지 않고 작가의 전 생애를 걸쳐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을 터이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정리 작업을 일단락하면서 쓴 글이 자서이므로 자서의 저작연도를 통해 문집 편찬이 자각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을 비정할 수 있다. 이에 <표 1>에 제시된 40종 가운데 24종 그리고 <표 2>에 제시된 27종 가운데 6종, 그리하여 도합 30종의 문집에 대한 자서의 저작시기를 조사해 정리하였다.

그 결과 도합 30종의 문집 중 저자 나이 20대에 편찬한 문집은 『강산초집』(薑山初集)을 포함해 2종, 30대에 편찬한 문집은 『육교고략』을 포함해 4종, 40대에 편찬한 문집은 『수정집』을 포함해 3종, 50대에 편찬한 문집은 『약산만고』(藥山漫稿)를 포함해 10종, 60대에 편찬한 문집은 『오재집』을 포함해 8종, 70대에 편찬한 문집은 『운양집』을 포함해 3종으로 집계되었다. 개별 문집마다 고유한 편찬 의도와 편찬 시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50대에 편찬한 문집이 전체 자료의 1/3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오광운(吳光運, 1689-1745)의 다음 언급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흥미로운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거백옥(遽伯玉)은 50세가 되자 49세 때까지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후세에 일컬어지지만, 하필 50세에 이르러서야만 그렇겠는가. 해마다 지난해의 잘못을 깨닫게 되니 내년에도 또 그러할 것이요, 날마다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게 되니 내일도 또 그러할 것이다. 천하의 의리가 무궁하고 내 마음이 잘못을 깨닫는 것도 무궁하지만, 인생은 유한하므로 잘못의 깨달음도 유한하다. 오호! 한탄스럽다. 인생은 제아무리 길어도 100년이므로 50세면 100년의 반이 된다. 인생에서 누가 능히 백세를 채울 수 있겠는가? 가버린 날은 간데 앞으로 올 날은 짧고, 상승할 때는 더디지만 내려갈 때는 빠르다. 날마다 후회해도 잘못을 버리지 않고 해마다 깨달아도 선을 실천하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렀으니, 늙어서 장차 어느 날에 홀롭게 지냈는가?²⁹⁾

오광운은 50세가 되던 1738년에 그간의 저작을 정리하고 위의 글을 남기었다. 인용문에서 그는 ‘지비’(知非), 즉 잘못을 깨닫는다는 거백옥의 고사가 비단 50세에만 유효한 일이 아니요, 지난날의 과오를 깨닫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논하고 있다. 다만 『예기』(禮記)에서도 인간 수명의 한계를 백세로 잡고 있는 바 50세를 중심으로 인생을 양분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³⁰⁾ 50세가 되면 지나온

29) 吳光運, 『藥山漫稿』 『藥山漫稿引』.

“遽伯玉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後世稱焉。然何必五十，年年而思之去季非，明年復然，日日而思之昨日非，明日復然。天下之義理無窮，此心之知非亦無窮，而人之生也有涯，其知非也亦有涯。嗚呼！其可歎也。人生極稱曰百年，五十百季中分之界也。人生誰能滿百，去日遠而來日短，上勢遲而下勢疾，日日追悔而非不去，年年覺悟而善未復，以至於此而老及之，其將何日而善耶？”

30) 인용문에 나오는 “인생은 제아무리 길어도 100년이다”(人生極稱曰百年)라는 오광운의

날보다 앞으로 다가올 날이 적으므로 이때를 기점으로 더욱 절실히 잘못을 깨닫고 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광운의 이러한 설명은 자편 작업이 비단 저작의 정리에만 그치지 않고 자성(自省)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실제로 『저암만고』를 비롯해서 상당수 자서에는 작가의 자기 성찰적 소회가 주요하게 표출되어 있다. 장유(張維, 1587-1638) 역시 자서에서 거백옥의 고사를 인용하며 “글짓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조금씩 발전할 것이니 뒷날 지금의 글을 보면 어떤 모습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³¹⁾

즉, 자편 작업은 저자에게 그간의 글쓰기를 정리하면서 작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지난날의 과오와 성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오광운처럼 스스로 인생 후반기라 간주하는 시점에 대대적인 자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된다. 물론 자편 행위가 일반화되면서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저술 정리를 하는 문인이 나오지만, 저자 생애의 전환기적 국면에 자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한다. 자편문집의 편찬 시기가 작가의 생의 주기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점 문학 연구자가 작가론과 작품론을 면밀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문집에 대한 문헌학적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조선시대 자편문집이 성행한 시기를 추적해보기로 한다. 저자 생존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표 1>에 제시된 40종 가운데 17세기 인물의 문집은 5종, 18세기 9종, 19세기 19종, 20세기 7종으로 집계된다. 그리고 <표 2>에 제시된 27종 가운데 18세기 인물의 문집은 7종, 19세기 17종, 20세기 3종으로 집계된다. 아울러 선행 연구에서는 17세기 이전 인물의 자편문집으로 4종, 17세기는 23종, 18세기는 12종, 19세기는 3종을 소개한 바

언급은, 『예기』 「곡례」(曲禮)의 “백세를 기라고 하니 봉양 받아야 한다”(百年日期頤)라는 말을 염두에 둔 것이다.

31) 張維, 『谿谷集』 卷5, 「默所稿甲自序」.

“若爲之不已, 庶有少進, 異日視此, 不知當作何如狀也. 蘧伯玉行年五十, 而知四十九年之非, 日新之效也.”

있다.³²⁾ 이에 본고의 조사와 선행 연구의 성과를 종합해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저자 생존시기별 자편문집의 종수

저자 생존시기 자편문집 조사	17세기 이전 (간본·필사본)	17세기 (간본·필사본)	18세기 (간본·필사본)	19세기 (간본·필사본)	20세기 (간본·필사본)	합계 (간본·필사본)
표 1	0	5(5·0)	9(2·7)	19(7·12)	7(6·1)	40(20·20)
표 2	0	0	7(0·7)	17(2·15)	3(0·3)	27(2·25)
기존 연구	4(4·0)	23(23·0)	12(12·0)	3(3·0)	0	42(42·0)
총계	4(4·0)	28(28·0)	28(14·14)	39(12·27)	10(6·4)	109(64·45)

<표 3>은 총 109종의 자편문집에 대한 저자 생존시기별 종수를 정리한 것이다. 총계가 나타내듯 17세기 이전 문인의 자편문집은 4종, 17세기와 18세기는 각각 28종, 19세기는 39종, 20세기는 10종이 조사되었다. <표 3>에 의하면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에 자편문집의 종수가 대폭 증가하는데 그 증가의 기점은 17세기이다. 그리고 17세기부터 시작된 자편문집의 증가세는 19세기까지 지속되며, 근대문학이 도입되는 20세기에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 문학사에서 20세기는 한문 글쓰기가 해체되고 한글 글쓰기로 재편되는 시기이므로 <표 3>에 20세기 자편문집이 10종 포함된 것은 산술적 의미 이상을 갖는다. 한문 글쓰기가 문학사에서 급격히 퇴조하는 시기에도 자편문집이 상당수 존속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고에서 발굴한 67종 가운데 저자 생전에 간행된 문집이 5종인데, 그 중 2종이 20세기 인물의 것이다. 따라서 자편문집이 17-18세기에 성행했다가 19세기에 오면 급감한다는 선행 연구의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저자 생존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자편문집은 17세기부터 급증하였고, 한문학이 종언을 고하던 20세기까지 꾸준히 성행했다고 보는 게 실상에 부합한다.

32) 정진웅(2009), 331-348.

요컨대 한문학사에서 ‘자편문집의 시대’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라고 명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집시대는 고려말 문인형 지식인이 출현하면서 개막하였고, 조선왕조에 이르러 사대부의 등장과 함께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본격적인 문집시대가 전개되었다.³³⁾ 자편문집은 그 중 본격적인 문집시대의 후반기를 관통하며 지속적으로 성행하였다. 조선후기 출판문화의 특징을 논할 때 자편문집의 존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특히 자편문집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조선후기 출판문화의 특징은 바로 ‘문집간행의 비약적 증가’이다.³⁴⁾ 19세기 홍한주(洪翰周, 1798-1868)는 영남지역 인사들의 과도한 조상현창(祖上顯彰) 경향을 지적하면서, ‘사묘(私廟)의 난립’과 ‘문집의 남간(濫刊)’을 비판한 바 있다.³⁵⁾ 이에 그간의 연구는 조선 사대부들이 향촌사회에서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조상의 문집을 앞 다투어 간행한 결과 문집간행의 증가가 초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영남지역의 조상현창’은 19세기 남간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효하지만 17세기부터 시작된 문집간행의 꾸준한 증가세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³⁶⁾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전체를 ‘남간’으로 통칭하는 데에서 벗어나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시기를 균질적으로 보지 않고 그 내적 변화상을 파고드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편문집은 조선 전/후기의 이분법적 도식을 지양하고 19세기 문집남간의 사적 기원으로서 17세기를 조명하

33) 문집시대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임형택, “한국본 集部의 형성 배경 및 문헌적 가치,” 『규장각』 46(2015), 1-15 참조.

34) 한국문집총간 영인사업을 위해 기획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문집 총 3,100여 종 가운데 99%가 조선시대 인물의 문집이고 조선후기 인물의 문집은 총 2,675종으로 전체의 86%를 상회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대동문화연구』 39(2001), 370-371 참조.

35) 홍한주, 『智水拈筆』 卷6, 栖碧外史海外蒐佚本叢書 13,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347-348. “近世嶺南人士, 動輒私設祠廟, 而槧印文集, 是皆鄉先輩也, 非盡舉世知名之名流也, 其計出於不欲失士大夫名稱, 而自以家勢寒賤, 既不得朝廷之科宦, 則實難保有門族, 號令鄉里, 區別於編戶故也.”

36) 문집간행이 17세기를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19세기에는 가속화의 단계를 밟았다는 분석은 김수진(2013), 358 참조.

게 한다. 저자 사후의 관점에서 조상 현창의 일환으로 후손에 의해 문집이 편찬되는 경향은, 저자 생전의 관점에서 자기 선양의 일환으로 문집을 자편하는 경향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문집간행의 증가세를 끌어올린 주된 동력으로 ‘자편문집’의 역할에 한층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고는 조선시대 자편문집에 대한 필자의 두 번째 고찰이다. 일찍이 필자는 조선후기 문집간행의 추이를 논하면서 17세기를 기점으로 저자가 생전에 자신의 문집을 정리해놓는 경향이 현저히 늘어난다고 논하였다. 그 후속 작업으로 본고에서는 규장각 소장 자편문집을 발굴해 분석함으로써 기왕에 필자가 수행한 추론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

본고의 탐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방법론의 측면에서 볼 때 저자의 서문과 인기 사항은 자편문집 판단의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자서와 인기 사항에 근거해 조사한 결과 규장각 소장 67종의 문집이 자편문집으로 고구되었다. 셋째, 자편문집의 관종은 원칙적으로 필사본이다. 조선 사대부의 강렬한 ‘저술 입언(立言) 의식’과 ‘간행 유예(猶豫) 의식’ 간의 긴장으로 인해 동시대 중국과 달리 조선의 자편문집은 필사본 형식으로 유전되었으되 상당 수준의 완성성을 지향하고 있다. 넷째, 자편문집의 편성은 초고본에 근접할수록 저작 연대순 편성방식을 취하고, 시기별로 성립된 작은 문집을 합편한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다섯째, 자편문집의 편찬 시기는 작가론의 측면에서는 저자 생애의 전환기와 연계되어 있고, 출판문화의 측면에서는 조선후기 문집편찬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 자편문집이 17-18세기에만 성행했다는 기존 보고와 달리, 저자 생존 시기를 기준으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성행했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이로써 자편문집의 시대는 본격적인 문집시대의 후반기를 관통하며 전개되었

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문인에게 문집은 과연 어떤 의미였기에 생긴 자편에 그토록 심혈을 기울인 것인가? 조선 전기와 달리 후기에 이르러 자편문집이 성행했다는 것은 문집의 기능이 정태적이지 않고 특정 시공간과 결부되며 역사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문집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사회적 구조는 무엇인가?

본고의 연구 결과가 제기하는 이상의 문제는, ‘소여(所興)로서의 문집’ 개념과 결별하고, ‘사회역사적 구성체로서의 문집’ 개념과 조우하게 한다. 문학이 시공간과 분리되어 창작되지 않듯이 문집도 시공간과 무관하게 소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문집은 조선이라는 공간에 근원을 둔 사회역사적 구성체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문집의 사적 전개 및 그 사회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다음의 과제로 남아있다. 다음의 과제를 향한 후속 탐사는 문집이라는 연구 주제 아래 문헌학과 문학을 통합적으로 사유하고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原典]

- 姜 瑋. 『古歡堂收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가람古819.55-G155g.
金炳性. 『管叟妄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想白古 814.5-G418g.
金汝振. 『三愚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47-13.
金永稷. 『蘿雲子初學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3428-759.
金 容. 『太疎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15501.
金允植. 『雲養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想白古 819.54-G429u2.
金履萬. 『鶴臯漫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3428-635.
金履萬. 『鶴臯集』. 한국문집총간(속) 제65집.
金澤榮. 『精刊韶濩堂集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819.6-G426j.
金憲基. 『初庵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4403.

- 羅海鳳. 『南礪集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奎 11586.
 南相吉. 『晚香齋詩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15529.
 南有容. 『雷淵詩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12241.
 孟晚燮. 『塞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804.
 朴齊瓌. 『荷江文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20.
 朴宗喜. 『晚村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4895.
 徐丙奎. 『畬農詩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想白古 811.6-Se61y.
 徐相羽. 『心壺靑粧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47-68.
 徐宗泰. 『晚靜堂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4144.
 徐宗泰. 『雜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813.
 徐直修. 『十友軒集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7747.
 成載崇. 『愍筍收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3428-876.
 宋琦鼎. 『新谷隨纂』.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6339.
 申 琬. 『網菴草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524.
 申 梓. 『鶴村私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527.
 申宅權. 『樗庵漫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3428-344.
 申東永. 『存齋遺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3436-27.
 申相秀. 『雲窩遺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819.73-Si61u.
 申 懺. 『素心遺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15513.
 申翊聖. 『樂全堂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4089.
 申厚載. 『葵亭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7145.
 沈樂洙. 『恩坡散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3428-820.
 沈翼雲. 『百一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7339.
 吳光運. 『藥山漫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353.
 吳昌烈. 『大山詩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47-38.
 柳最鎮. 『病唵詩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47-18.
 俞漢雋. 『自著』.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328.

- 尹心緯. 『言息所私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632.
- 尹 植. 『無睡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244.
- 尹昌晝. 『野淵漫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가람古 819.54-Y97y.
- 尹馨圭. 『戲齋雜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493.
- 李匡師. 『斗南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3428-347.
- 李九夏. 『知非稿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7640.
- 李德壽. 『西堂私載』. 한국문집총간 제186집.
- 李德夏. 『誠新齋自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265.
- 李德夏. 『誠新齋集』. 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 소장본.
- 李道衍. 『義軒漫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3428-503.
- 李度中. 『新齋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0270-15.
- 李敏求. 『東州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6139.
- 李尙迪. 『恩誦堂續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가람古 819.56-G425u.
- 李相瓚. 『桐漁遺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336.
- 李書九. 『薑山初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7488.
- 李亮淵. 『臨淵堂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317.
- 李 潛. 『松溪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5137.
- 李裕元. 『嘉梧藁略』.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36-6.
- 李在熹. 『笑笑漫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818-So73.
- 李祖默. 『六橋藁略』.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5605.
- 李喆輔. 『覆醬具』.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458.
- 李喆輔. 『止菴遺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342.
- 林光澤. 『雙柏堂遺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467.
- 張 維. 『谿谷集』. 한국문집총간 제92집.
- 鄭景淳. 『修井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7567.
- 鄭健朝. 『蓉山私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1650.
- 鄭世永. 『石泉私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819.56-J465c.

- 鄭 煜. 『梅軒照影』.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733.
- 鄭在褻. 『愼窩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182.
- 趙禮錫. 『盤菴文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古 40.
- 趙正萬. 『寤齋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15566.
- 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4451.
- 趙漢復. 『我夢彙語』.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498.
- 趙漢復. 『彝叙詩話』.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28-497.
- 韓益相. 『自娛』.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12098.
- 韓致元. 『冬郎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4536.
- 咸瑑, 柳最鎮. 『雲山類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3447-19.
- 洪敬謨. 『冠巖山房新編耘石外史』.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6996, 古 3428-263(8), 古 3428-263(9).
- 洪翰周. 『智水拈筆』. 栖碧外史海外蒐佚本叢書 13.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下).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4.
- 『귀중본도서 조사사업 결과보고서』 1-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2015.
- 『한국문집총간해제』 1-11. 한국고전번역원, 2003-2013.

[著書 및 논문]

- 김대중.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 김수진. “조선후기 간본문집의 편집경향.” 『규장각』 42(2013). 97-127.
- 김수진. “조선후기 문집간행의 추이와 그 특징.” 『어문연구』 159(2013). 353-373.
- 김수진. “『은파산고』(恩坡散稿)의 성립과 심노숭(沈魯崇).” 『한국문화』 72(2015). 131-163.
- 김영진. “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自編稿 『煉湘閣集』 및 그 계열본에 대하여.” 『동양학』 48(2010). 43-71.
- 김영진. “조선후기 중국사행과 서책 문화.” 『연행의 사회사』. 수원: 경기문화재단, 2005. 237-290.

- 김윤제. “조선시대 문집 간행과 성리학.” 『한국사시민강좌』 37(일조각, 2005). 75-95.
- 류탁일. 『영남지방출판문화논고』. 부산: 세종출판사, 2001.
- 박동욱.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 - 『정헌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8권 3호(2010). 381-409.
-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대동문화연구』 39(2001). 365-394.
- 심경호. “조선시대 문집 편찬의 역사적 특징과 문집 체제.” 『한국문화』 72(2015). 101-130.
- 임형택. “한국본 集部의 형성 배경 및 문헌적 가치.” 『규장각』 46(2015). 1-15.
- 정진웅. “조선시대 자편문집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44(2009). 331-348
- 천혜봉. 『한국서지학연구』. 서울: 삼성출판사, 1991.
- 최영욱. “김택영 문집의 간행경위와 이본고.”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